

**동유럽발칸학**

2001 제3권 2호

Journal of Central & East European Studies

---

유고 문학 속에 나타난 민족주의 성격  
- 부크 까라지치에서 이보 안드리치까지 -

김 지 향

한국동유럽발칸학회

2001

# 유고 문학 속에 나타난 민족주의 성격\*

- 부크 까라지치에서 이보 안드리치까지 -

김 지 향\*\*

## 차 례

- I. 시작하는 말
- II. 유고 문학 속의 민족주의
- III. 부크의 민족어와 민족문학 형성
- IV. 이보 안드리치 소설과 민족문학
  1. 안드리치 소설의 문학적 근원
  2.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3. 장편 소설을 중심으로
- V. 맺는 말

## I. 시작하는 말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오늘 날 우리는 국경을 넘어선 세계화와 지구촌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과 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되짚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사상은 어떠한 연유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을까? 이에 우리는 문학의 역할과 영향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다. 왜냐하면 문학이란 제 나라 민족

\* 이 논문은 1999-2001년도 한국 학술 진흥 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국외대 외국 문학 연구소 연구교수

의 역사적 배경과 민족성에 근거한 가장 중요한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족’과 ‘민족문학’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 백낙청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민족문학의 주체가 되는 민족이 우선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민족으로서 가능한 온갖 문학활동 가운데서 특히 그 민족의 주체적 생존과 인간적 발전이 요구되는 문학을 ‘민족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구별시킬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 문학 I, 창작과 비평사, p 124-125)

그 중에서도 특히, 유고슬라비아(이하 ‘유고’라고 약칭함)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준 유고 문학 속에 드러난 민족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학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발칸 반도 내 민족들의 문학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각각의 민족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들이 기독교를 수용했던 9세기경으로 그 기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의 기독교 수용과 더불어 유고계 민족의 민족 의식 형성에 가장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상적 근거의 중심에는 그들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이 있다. 특히, 동유럽 중에서도 유고는 발칸의 화약고라 불릴 만큼 침략, 파괴, 학살, 탈취 등의 수난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었다. 또한 지난 세기말에는 90년대 초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난 바 있으며 95년에는 코소보 사태가 발발하면서 세르비아계가 알바니아계를 말살한다는 인종 청소의 현장으로 낙인찍히기도 하는 등 질곡의 역사적 현장으로 세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하였다. 사실, 이러한 그들의 운명 뒤에는 복잡하게 뒤얽힌 그들의 역사가 숨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들, 유고를 이야기할 때 ‘모자이크의 나라’라고 일컫는다. 지금은 물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등이 독립을 해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이전의 6개의 공화국을 통합하여 형성되었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안에는 라틴 문자와 키릴 문자로 나뉘는 2개의 문자가 혼용되었고 세르비아 정교, 카톨릭, 회교 등의 3개의 종교를 국교로 삼고 있으며,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등의 4가지 언어가 공식 언어로 지정되었다. 또한, 세르

비아계, 크로아티아계, 회교도, 알바니아계, 그리스계 등의 5개의 민족이 모여 살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7개의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야말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결국, 발칸 반도의 구(舊) 유고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아래 그들만의 독창적인 정치력과 사회적 주체성을 지니고 있는 민족들로는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회교도, 슬로베니아인, 마케도니아인 등이 있는데, 각각 제 민족들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민족 문학의 역할을 조명해 보는 작업은 매우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사실, 민족주의, 민족 국가라는 개념에 대한 정립과 발전이 18세기말과 19세기 제국주의의 산물이라고 본다면, 19세기, 20세기 작가들에게서 이러한 개념에 대한 향거나 수용은 시대성에 부합한 자연스런 일로였는지도 모른다. 민족주의의 본질적인 개념이 국가와 민족에게 충성과 애국심을 요구하는 정치 철학이라는 측면에서 19세기 초반부터 세르비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민족주의에 대한 움직임은 주로 작가와 사상가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발전을 해 왔다. 그러나, 서유럽에서의 민족주의가 정치, 경제, 사회 발전과 보조를 맞추어 발전을 해나간 반면, 동유럽은 19세기까지 봉건적인 사회 구조에다 민족의 통일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유입, 전개되면서 서유럽과는 다른 양상을 띄게 된다. 게다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시절을 겪은 동안 유고인들에게 민족주의라든가 민족의 개념을 부각시키는 행위는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쳐져 온 것이 사실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민족문학'이란 말을 화두에 올리기만 해도 무슨 커다란 일이 생기기라도 할 것처럼 경계를 하는 때가 있었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마치 유행처럼 '민족'과 '민족문학'에 대한 담론이 붐을 일고 있다. 이렇듯 유고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고 게다가, 제 1차 세계 대전과 2차 대전을 가장 처절하게 겪은 나라이므로 독일의 나치즘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민족주의와 거의 같은 개념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로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의 '민족'들을 형성하게된 문학의 실천적인 고찰을 수행한다고 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문학이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며 결국은 이보 안드리치가 그들의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고찰하여 영

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문학에 나타난 이러한 개념을 살펴보는 작업에 앞서서 유고슬라비아 내에서의 민족주의 혹은 민족 문학에 대한 그들의 정의를 살펴보고, 19세기 초 세르비아 언어를 표준화시키는 작업과 더불어 흩어져 있던 구비문학을 집대성하여 유고슬라비아 내에서 최초로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노력을 보였던 언어 혁명가 부크 카라지치(Vuk Stefanović Karadžić)와 1961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로 알려져 있고, 소설 『드리나 강의 다리』, 『저주받은 안뜰』 등이 한글 번역본으로 소개되어 국내에 잘 알려진 작가 이보 안드리치(Ivo Andrić)의 작품들을 다루려고 한다. ‘민족’과 ‘민족적인 정서’로 함축하여 표현할 수 있는 부크 카라지치의 업적은 이후 세르비아 문학사뿐 아니라 세르비아 민족의 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영국인들은 그들의 제국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15소년 표류기를 만들어 내서 읽혔듯이 세르비아인들에게 있어서도 부크의 구전 문학 수집과 집대성은 그들의 민족적인 정서와 민족 문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유고슬라비아에서 드러나고 있는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을 구 유고 연방 전역에 걸쳐 활동한 바 있으며 전후 가장 중요한 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노벨 수상작가 이보 안드리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유고 문학 속의 민족주의

서양에서 18세기 후반에 산업적, 정치적 변혁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민족주의라는 이념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대립 혹은 적대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민족과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내세워지는 원리라는 것이다. 그 역사적 연원을 살펴보면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에서 부르조아지의 이데올로기로 성장하기도 했으며 인권과 자유를 실현시키는 시기를 거치기도 했고 전쟁과 분쟁의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는 등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민족주의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대립과 투쟁에 처해 있을 때 자기 보호를 위하여 국민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공통성과 동질성을 근거로 통합시키는 원리로 인식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정치 질서 속에서 부르조아지의 이데올로기로 등장함으로써 인권과 자유와 민주적 정치 질서를 실현시키는데 기여했는가 하면, 그 전개 과정에서 국내적으로는 지배 집단의 권력 유지에 활용되기도 하고, 대외적으로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파시즘이나 나치즘과 같이 배타적, 공격적인 기치로 분쟁과 전쟁의 동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그리스인의 우월 의식이나 선민의식처럼 고대 시대부터 존재하였으나, 18C 프랑스 혁명 이래 보다 급진적인 사상으로 자리 매김하여 20C초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기에 이르렀다.(이상신, 1999: 7-29) 이렇듯 다양한 관점에 의하여 해석될 수 있는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민족과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고슬라비아에서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지금 현재는 각 공화국마다 독립을 하여 각각 다른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으나 안드리치가 작품 활동을 했을 당시만 해도 유고는 6개의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연방국이었다. 그러므로, 저마다 다른 민족들로 이루어진 한 나라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부각하여 통일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안드리치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과 부크의 민족주의 운동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안드리치 소설 속 주된 배경이면서 유고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 보스니아의 사회적 배경과 민족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발칸 반도 중부에 위치한 보스니아에는 12세기 말 보스니아 최초의 국가를 건설했던 반 쿨린(Ban Kulin)의 통치 시기부터 퍼져있던 보고밀 주의가 14세기 기독교 세력에 의해 개종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그들은 오스만 터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되는 현상이 자연스레 나타나게 되고 이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교도들과 7세기 경 아드리아 해안의 자다르를 중심으로 정착해서 9세기 초 프랑크 왕국의 샤를르 마뉴 대제 때 기독교를 수용했던 크로아티아인, 비슷한 시기(9세기경) 라스카 제국의 무티미르에 의해 기독교를 수용했던 세르비아인들로 이루어져있다. 세기초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황태자가 사

살되는 것으로 인해 제 1차 대전의 발생지이기도 했던 보스니아는 세기가 저물어 가는 지금에도 인종분쟁이 자행되는 비극적 현장의 현주소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보스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리 이해가 힘든 부분은 아니다. 이러한 그들의 뒷 배경을 이해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종교이다. 때에 따라, 인류 사회의 구원이자 재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종교는 보스니아인들을 철저히 격리시켜 놓았다. 결국, 보스니아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종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서로 다른 축으로 해서 상이한 문화, 이질적인 관습을 고수하고 있는 각각의 민족들에게서 이민족들의 지배를 벗어난 독립적 환경은 오히려 갈등의 첨예화 현상을 잉태하게 된다. 따라서,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이슬람교도들로 이루어진 보스니아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합한 의미의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인종적인 것 혹은 종족적인 것을 나타내는 종족적 민족주의(etnički nacionalizam)인데 반해, 안드리치는 종교적인 것, 사회적인 것을 나타내는 문화적 민족주의(kulturni nacionalizam)의 개념을 작품에서 드러내고 있다. 오 천년을 넘게 단일한 혈통과 공통의 조상, 언어의 통일성과 민족적 연대의식이 배어있는 우리의 정서에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지만, 안드리치 작품의 주된 배경으로 나오는 독특한 땅, 보스니아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담론이다. 즉,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의 산물로 잘 알려진 민족주의가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동시에 나타났었는데, 영국,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주로 정치적, 경제적 변동으로 민족주의가 나타난 반면 보스니아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에서처럼 주로 문화적인 면에서 민족주의가 표현되었다는 사실은 본고의 연구 이해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보스니아인들에게 나타나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근대적 의미의 민족은 국가라는 등식에 입각한 민족 국가(nacionalna država)가 아니라 민족정신과 문화, 민속, 모국어 및 역사 등을 통한 그 민족 정신에 입각한 문화적 공동체, 종교적 연대 구성체라는 것이다.(김지향, 외국문학연구, 57-58)

### Ⅲ. 부크의 민족어와 민족문학 형성

문학에 나타난 민족의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문학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세기, 15세기에 이미 자신들의 언어를 문학언어 혹은, 표준어로 삼았던 서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세르비아 문학의 중심어인 세르비아어는 부크 스태파노비치 카라지치(Vuk Stefanović Karadžić)가 세르비아인들의 구비 문학을 집대성하여 언어를 통일시킨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문학의 중심언어가 되었다. 한 민족의 사회적, 문화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민족적 정취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족 언어의 통일을 구현할 필요성에 대해 부크는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대 사회학자들이 공공연하게 정설로 인정하고 있는 민족이란 언어공동체를 본질로 해야한다는 이론을 인식함으로써 그에 의해 추진된 ‘세르비아주의’는 ‘언어 민족주의’ 혹은 ‘문화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도 미국인과 영국인, 캐나다인과 호주인들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없듯이 언어가 반드시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결집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앤드슨(Benedict Anderson)은 자신의 저서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어떤 민족주의 이념가들이 언어를 취급하듯이 언어를 국기, 의상, 민속무용처럼 민족의 상징(emble)으로 취급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다. 언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특정한 결속감을 건설하며 상상의 공동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능력이다.(앤드슨,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p. 167)

일찍이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민족이라는 개념아래 한 나라를 이루고 살며 따라서 말이 융성하면 제 민족과 제 나라가 융성하고 말이 쇠퇴하면 그 민족의 운명과 국운도 함께 쇠퇴한다는 생각을 늘 염두하고 세르비아 민족의 운명과 국운을 세르비아어의 흥망과 매우 밀접한 역학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의 언어에 대한 혁명과 노력은 궁극적으로 세르비아 민족에 대한 자긍심



과 민족적 전통을 수호하려는 의지에서 연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크에 의한 언어적 통일은 문자 보급으로 이어져 그동안 극소수로 분류되어 있던 식자층을 넓히는 동시에 유고인들의 대중 민족주의를 자극하게 된다. 이는 곧바로 통일된 언어로 된 서적들의 대량 출판을 낳게 하여 동일한 활자어로 된 서적들을 일게 되는 독자나 민중은 서로를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 의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낭만주의가 이끄는 사상 즉, 민족의 과거를 되새기면서 그러한 상황을 시적인 감성으로 풍부하게 읊어 내고자 하려는 노력, 민족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갈망 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시대였다. 따라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려는 노력, 사회 전반에 걸쳐 독립적인 운동을 전개하려는 식자층으로부터의 성숙한 자각 등이 유고 전체에 만연해 있었다. 이때에 가장 현실적인 제안을 민중에게 던진 이가 바로 부크였던 것이다. 물론, 그는 도시테이 오브라도비치(Dositej Obradović) 시대의 우호적이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30년의 긴 시간을 거쳐 자신의 사상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는 ‘문학언어(književni jezik)’에 대한 자각을 호소하고 그 스스로 이에 대한 수많은 업적을 일구어 냈다. 그가 세르비아 전역을 돌며 집대성한 구비문학 전집과 언어적 혁명은 유고인들을 하나로 묶는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었다. 언어에 대한 자숙, 그것으로 이어지는 민족적 자긍심은 민족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시켜주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당시부터 동일한 언어에 대한 의식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고인들에게 세르비아의 언어적 전통성을 일깨워 주는 동시에 유고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준 것이었다.

#### IV. 이보 안드리치 소설과 민족문학

시인으로 문단에 등단(1918)한 안드리치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수많은 소설들을 발표하면서 보스니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로 점철된 이야기들을 통해 제 민족이 당면한 문제들을 객관적 시각으로 조명한 역사-소설가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작가이다. 그의 작품들에는 소설에서 흔히 다루기 어려

운 난해하고 딱딱한 테마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아인들이 그의 작품을 가장 즐겨 읽고, 안드리치가 가장 사랑받는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유는 제 민족의 정신과 민족 정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러한 것들을 작품에서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안드리치 작품들에 대한 개별적 검토에 앞서서, 그의 소설들의 주된 배경으로 등장하는 보스니아에 대한 작가의 남다른 애정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 1 안드리치 소설의 문학적 근원

안드리치에게 보스니아는 짙은 향수와 결코 떠날 수 없는 귀소 본능을 일으키는 곳이었고, 그는 대부분의 그의 작품들 속에서 보스니아에 대한 연민과 애정, 사랑으로 점철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다.

1892년 그가 태어난 보스니아의 작은 도시 트라브니크, 유년 시절을 보낸 보스니아의 비셰그라드, 사춘기와 성장기를 보낸, 한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의 수도였던 사라예보는 작가 안드리치가 글을 쓸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 넣어주고 그 이야기들의 결정적인 소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안드리치 작품<sup>1)</sup>들에서는 이러한 도시와 마을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역사들을 세르비아 정교인들의 눈으로, 카톨릭 신부들의 눈으로, 회교도들의 눈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슬람 세계를 나타내는 ‘동방’과 기독교 세계를 상징하는 ‘서방’으로 대비되는 두 개의 거대한 문화로 드러나는 민족에 대한 묘사로 드러나고 있고 보스니아 내에서의 독특한 민족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안드리치가 그의 수많은 작품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소설가로서 못지 않게 사학자로도 인정받고 있는 그가 역사를 통해 바라본 제 민족들의 갈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1920년 그가 발표한 처녀 소설 “알리아 제르젤레즈의 여행”부터 그의 사후(死後)에 발표된 끝을 맺지 못한 소설 “오메르 파샤 라타스”(1977)까지에 걸친 그의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 2 단편소설을 통해 본 민족문학

1918년 『엑스 폰토』라는 시집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한 안드리치는 1920년 그의 처녀 단편 소설 『알리야 제르젤레즈의 여행』을 발표한 이래 꾸준히 단편, 중편, 장편 소설들을 발표했는데, 그의 소설들은 언제나 회교도 문화권의 사람들과 기독교 문화권의 사람들 그리고, ‘회교-터키’의 색깔을 띠는 ‘카사바(kasaba)’ 속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떠있는 서양 출신 외교관들, 역사와 세월의 변화에 의해 기독교에서 회교도로 개종해야 했던 비운의 무르타드 타보르(Murtad Tabor)들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문단에 등단한지 6년째를 맞은 1924년에 안드리치는 그라쯔에 있는 철학 대학에서 ‘터키 지배 영향하에서 보스니아에서의 종교 생활의 발전’<sup>2)</sup>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단순한 픽션작가로서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들, 또한, 그것을 사학자와 같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선, 안드리치의 처녀작인 『알리야 제르젤레즈의 여행』(1920)은 「여인숙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행길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라예보에서 일어나는 일」 등의 각각 세 편의 짧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여인숙에서의 제르젤레즈 이야기 첫 장에서부터 이미 비슈그라드 세관 근처의 숙소에서 서서히 꽤 많이 모여드는 사람들, 즉, 크레셰보에서 온 카톨릭 신부, 뿔레발료에서 온 세르비아 상인, 만물상 아랍인, 사라예보에서 온 세 명의 베니스인, 그리스인 사제,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부유한 터키인들을 묘사함으로써 보스니아에서의 민족 문제를 은유적인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숙소의 카페에 서서히 모여드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네들의 언어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어울리는데, 서로 다른 종교나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간섭하려 들지 않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안드리치는 작은 땅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해결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는 두 번째 이야기인 여행길에서 제르젤레즈에게 충고하는 정교 사제의 언급으로 빚대어 드러나고 있다 ; “전능하고

2) "Razvoj duhovnog života u Bosni pod uticajem turske vladavine", prosveta, Beograd.

자애로운 신이 갖가지 화려한 꽃들을 창조하셨듯이 여러 다양한 종교도 만드셨다. 신이 만약 한가지 종교만 있기를 원하셨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종교를 만드신 걸 보면 각자 자기가 믿는 방식대로 기도를 드리고, 나름대로의 종교를 갖는 것이 좋겠다”(Ivo Andrić, Put Alije Đerzeleza, 1991, p. 13.) 라는 사제의 충고를 통해 안드리치는 다른 문화와 종교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1922년 그가 발표한 소설 『터키 군대 주둔 시기』는 19세기 초 터키 군대가 까라조르제의 반란군을 몰아내기 위해 세르비아로 들어가기를 기다리면서 보스니아의 작은 도시 비셰그라드에 주둔하고 있던 때를 그리고 있는 이야기이다. 당시 비셰그라드는 우쥬짜와 노비 파차르에서 온 난민들로 가득 차 있어서 터키 군에 밀려 비셰그라드로 온 기독교인에게나 그 안에 이미 살고 있던 회교도인들에게 모두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결국, 두 민족적, 종교적 집단들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경계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집단들이 함께 어울려 있을 때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경계와 충돌을 묘사하고 있지만, 단 서로의 문화에 대해 공격적일 때라는 것을 조건부로 달고 있다는 것을 통해 각각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표방하는 작가의 일관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1923년 소설 『무스타파 마짜르』는 주인공 무스타파 마짜르가 알라신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양분된 전쟁터에서 보여주는 활약상을 그린 내용으로, 전통적인 헝가리게 출신으로 그의 할아버지 대에 회교도로 개종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러시아, 헝가리, 슬라보니아 등지에서 터키군의 용맹을 떨치는 군인으로 이름을 떨치면서 가장 빈번히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군을 무찔렀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헝가리인’을 뜻하는 ‘마짜르’로 불린 영웅의 이야기이다. 물론, 이 소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군인으로서의 뛰어난 활약상이 아니라, 소설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의 인생의 정점을 이루는 ‘성공에서 몰락으로’ 이르게 될 때의 무스타파 마짜르의 실패이다. 오스트리아 군을 무찌른 터키의 승리에 대해 주인공 무스타파 마짜르가 회상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처참하게 살해된 오스트리아 인들과 그 마을 기독교 주민 뿐 아니라, 망상에 사로잡혀 약탈과 살인

을 행하는 터키인들, 회교도 신자인 바냐룩카인들의 불안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안드리치는 이 작품에서 전쟁이란 승자에게조차도 얼마나 고통스런 결과를 안겨주는가 하는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시에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아주 보편적 진리를 주인공의 회상 장면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스타파 마자르의 대사 중에 “세례를 받은 곳이든 세례를 받지 않은 곳이든 모두 비열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군”(Ivo Andrić, *Mustafa Madžar*, 1991, p. 22)하는 부분에서는 반목과 질시가 있는 세상에 대한 경중을 울림으로써 화해와 이해를 민족 갈등의 해결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본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러 종교에 대한 작가 안드리치의 폭넓은 이해와 식견이 특징적인데, 작가 스스로가 카톨릭계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으로 상이한 종교로 제각기 나뉘어진 보스니아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같은 해(1923) 그가 발표한 소설 『무싸피르 하나』에서는 초르칸, 니콜라 크릴레티치, 삐타르 신부와 더불어 안드리치 작품들에서 기독교 세계를 상징하는 인물로 마르코 크르내타 신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어느 날 세 명의 아니차르가 무싸피르 하나에 찾아오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그들 중에는 사라예보 출신으로 아주 심하게 병들어 있는 오스모 마멜레쥐야만이 무싸피르 하나에 남고 나머지는 떠났다. 혼자 쓸쓸하게 남은 이 터키인을 돌보는 마르코 신부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모습을 통해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서로 상반되는 두 세상의 상호적인 이해와 공존에 대한 시도를 읽을 수가 있다. 소설 『무싸피르하나』<sup>3)</sup>에서 나오는 신부 마르코 크르내타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상당히 고집 세고, 때로 잘 어울리지 않고, 외국인들, 특히 다른 종교인들에게는 전혀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마르코 크르내타의 고집 센 성격이나 비사교적인 모습은 두 종교 세계가 서로의 것을 고수하면서 융화하지 않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역시 자기가 속한 종교의 사람들로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마멜레쥐야를 돌봄으로써 종교와 문화를 넘어선 휴머니즘을 안드리치는 보여주고 있다.

3) 터어키어로, ‘숙소’ 혹은 ‘여인숙’을 뜻한다.

1924년 안드리치가 발표한 소설 『감옥에서』는 앞서 말한 소설들과 달리, 마르코 신부가 수도원의 많은 벌금을 돌려싸고 회교도 고관의 부동산 관리인 파즐로와의 대립을 겪는 것과 감옥에서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다. 터키 감옥에서 마르코 신부는 똑같은 이유로 잡혀 들어온 세르비아정교 수도승 밀렌티예비치를 만나게된다. 카톨릭 신부들과 세르비아 정교 수도승들이 한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돌려싸고 대립했지만, 지금 이 감옥에서는 같은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곳 감옥으로 넣은 터키의 압제자 파즐로를 증오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장면에서 화합과 조화의 가능성이 어느 편 모두에게 잠재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결국, 종교로 나뉘어진 이질적 문화 집단이지만,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일변할 수 있는 융통성을 보여줌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드리치는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민족이란 개념이 어떤 혈통과 역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종교라는 문화적 요소에 의한 것이므로 유고인들의 민족의식을 이해하는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점이기도 하다.

1925년 소설 『재파 위의 다리』에서 주인공 터키 베지르<sup>4)</sup> 유수프는 보스니아 출신으로 경험 많고 학식있는 사람이다. 한때 술탄<sup>5)</sup>의 음모에 빠져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고독과 냉대 속에서 살면서도 자신의 뿌리와 고향을 항상 떠올리면서 인간적인 운명에 고뇌하는 것을 담은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서는 종교로 양분된 사회에서 희생양이 되고 마는 한 인간의 고뇌를 통해 종교와 문화를 초월한 화합과 포용, 공존하기 위해 갖춰야되는 서로간의 이해와 조화를 안드리치는 역설하고 있다.

1937년 소설 『몸통』에서 빼파르 신부는 켈레비 하피즈의 집에 시계를 고치러 왔을 때 켈레비 하피즈가 어떤 사연으로 몸통밖에 남게 되었는지를 우연히 듣게 된다. 내용인 즉은, 하피즈가 시리아를 공격해 잦은 탄압을 가하고 시리아인들을 파멸시키는 와중에 사막에서 우연히 발견한 소녀를 구해주었고, 결국 이 소녀는 하피즈의 부인이 되어 하렘과 그의 전 재산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다름

4) Vezir, 회교국가의 고관 혹은, 장관

5) sultan, 회교군주

아닌 복수의 칼을 갖고 있던 시리아 여인이었던 것이다. 여인의 복수로 하피즈는 팔다리를 모두 잃고, 한때 ‘불덩어리 하피즈’라고 불리던 명성이 무색하게 통나무 와도 같은 신세가 되어 시계 소리만 들으며 세월을 보내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한 터키인이 빼따르 신부에게 하피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결국, 이 부분에서도 안드리치는 갈등과 충돌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는지,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에는 영원한 승자가 결코 존재 할 수 없다는 보편적 진리를 깨우쳐 줌으로써 화해와 이해를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빼따르 신부가 언제나 이 이야기를 할 때면 서두에든 끝마무리에든 말한다는, “터키인은 산산조각이 나도 그 부분들이 독립해서 다시 되살아나는데, 기독교인들은 유리 같아서 한군데만 흠이 생겨도 산산조각이 난다”(Ivo Andrić, *Trup*, 1991. p. 19) 는 언급이 나온다. 이는 아주 가까이 있지만, 서로에게 철저히 폐쇄적인 두 문화의 대립으로 인해 서로에게 두렵고 경계해야하는 실체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을 안드리치는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그가 시종일관 그의 작품들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가 꿈을 꾸었던 거라면, 이렇게 이상해지지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어찌겠어? 아시아에서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누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인지 서로 물어 볼 수 있고 어느 누구도 그 질문에 대답이나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곳이고, 그리고 결국 질문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잊혀지고. 그토록 많은 사람과 민족들이 오랜 세월동안 살아가고 있는 곳인걸.”<sup>6)</sup>이라고 하는 빼따르 신부의 말에서 안드리치는 서로 다른 문화간의 접촉과 만남의 필요성, 서로간의 유대를 역설하고 있다.

### 3 장편 소설을 통해 본 민족문학

안드리치가 196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작품 중의 하나인 소설 『트라브니크의 연대기』(1945)는 안드리치의 고향인 트라브니크에 1807년 프랑스 영사가 왔을 때부터 1814년 트라브니크에서 프랑스 영사와 오스트리아 영사가 떠나는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베지르의 도시

6) Ivo Andrić, *Žed*. p.150

트라브니크에 나폴레옹의 프랑스왕국 외교대표로 온 영사 빠예르 다비드라는 실제 인물의 일기와 회상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영사들의 시간’이라는 부제로 잘 알려진 소설이다. 내용인 즉은, 프랑스 영사와 오스트리아 영사,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낯선 땅으로 와 코나크<sup>7)</sup>에서 원주민들과 베지르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야기 중에 오스트리아 영사관에서 주치의로 근무하는 래반트인 콜로냐가 신경 쇠약과 삶에 대한 공포에 쌓여 있을 때 터키인들에게 이슬람을 받아들일 의사를 밝히고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편”으로 옮겨가는 극적인 장면이 나온다.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개종을 하면 영원히 변절자로 낙인찍히는 그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개종을 결심하는 모습을 통해 안드리치는 어느 종교도 결코 우위에 있지 않으며, 그것이 동기가 되어 삶에 방해가 된다는 당시에는 그리고 보스니아에서는 인정되고 있던 통념에 반기를 들고 있다. 결국, 터키인들 사이에서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모두 냉대를 받게 되는 콜로냐를 통해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 사회 못지 않게 그 안에 객체를 이루는 한 인간의 사소한 결정도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인정해야만 하는 진리임을 작가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적인 것,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벌어질 수 있는 지극히 개연적인 것들에 대해 그는 수용의 의사를 표방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다른 문화, 다른 사회에 대한 인정이며, 공존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오게 되면서 생기는 불협화음과 갈등이 작품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프랑스 총영사 잔 다빌이 트라브니크의 카사바<sup>8)</sup>에 처음 들어서는 장면부터 이미 적대감과 증오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다. 안드리치는 주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이 장면만큼은 영사의 시각으로 그려져 있어 독자도 영사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서 더욱 그 생생한 반목과 갈등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 24년이나 파리에서 지낸 젊은 영사 테포쎬는 동양적인 특징을 갖춘 카사바에서의 생활이 그다지 쉽지는 않았다. 다빌과는 달리, 테포쎬는 보스니아에 관한 책을 쓰려는 의도도 있었고, 보스니아에서의 아주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아주

7) konak, 터키어로 고관이나 부유한 지주들이 살던 집을 가리킴.

8) kasaba, 아랍어로 도시내의 행정적으로 나뉘어진 구역 단위



적극적인 수용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와 화합의 시도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 서로의 문화에 동화되지 못한 이방인들을 카사바는 마치 타인의 몸처럼 던져버렸다는 것으로 소설은 끝을 맺고 있다. 결국, 두 거대한 문화의 서로 동화 될 수 없는 한계를 작가는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리치가 주장하는 논리는 절충과 통일로 획일되는 개념이 아닌 각각의 개별적 집단들의 독자적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는 다문화적 민족주의(multikulturni nacionalizam)임을 알 수가 있다.

안드리치(1892-1975)의 오랜 문학 업적 중에서 장편소설은 비교적 짧은 시기를 차지한다. 세 편의 장편 소설 『드리나 강의 다리』, 『트라브니크의 연대기』와 『아가씨』는 모두 2차 대전 중에 쓰여져서 1945년에 출판된 작품들로, 모두 역사와 시대상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데다 특히, 소설 『드리나 강의 다리』(1945)는 『트라브니크 연대기』와 더불어 안드리치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작품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사회에서 사람들간에 양분되어있거나 제각기 흩어져있는 것들을 서로 이어주고 화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교량’ 즉, 다리(mostovi<sup>9)</sup>)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산물은 ‘다리’라고 할 정도로 실제 비쉴레그라드의 드리나 강 위에 놓여진 다리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소설 『드리나 강의 다리』를 집필하였다. 이 소설은 실제 드리나 강 위에 세워진 다리의 연대기로도, 다리 옆에 있는 마을 카사바에 대한 연대기로도, 혹은 비쉴레그라드시의 연대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작품이다.

안드리치는 수세기에 걸친 이 도시와 사람들의 운명의 역사를 마치 사학자가 연대기를 써 내려가듯 적어 내려가고 있다. 왜냐하면, 소설의 시간적 경계는 연대기로써는 타당하지만 소설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는 매우 긴 세월인 1516년부

9) 1933년 베오그라드 일간지 "Politika"에 안드리치는 'Mostovi'라는 제목으로 짧은 에세이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시작된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세우거나 만들어낸 모든 것 중에서 다리보다 아름답고 가치있는 것은 이제껏 보지 못했다...나의 상념이 시작되거나 멈추는 세상 어느곳에서나 영원히 사라지지않는 사람들의 꿈을 만나듯 우리의 눈앞에서나, 발끝에서나, 정신 앞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서로 결코 흩어지거나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하기 위해서 이어주고 화합시켜주는 과묵하고 믿음직스러운 다리를 발견하게 된다."

터 1914년 자그마치 400년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이다. 전체 소설 중에서 종교로 나뉘어진 이곳 주민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장면은, 5장에서 천재지변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자-리스탄의 집에 모여 터키 사람들은 터키 방식대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방식대로 자리를 잡고 앉아있었다. 그 마을은 터키 구역과 기독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무크타르(muktar, 혹은 muhtar)<sup>10</sup>와 크메트(kmet)<sup>11</sup>는 각자 자기들의 시민들을 피신시키느라 온몸이 흠뻑 젖어있었다. (“터키인들과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한데 뒤섞여 있었다. 자연의 힘과 그들의 공통된 불행의 짐이 이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모아놓았으며, 적어도 오늘 저녁만큼은 종교와 종교를 갈라놓은, 특히 터키인과 라야(rajia)<sup>12</sup>)를 갈라놓는 불행한 껌을 없앴다.”(Ivo Andrić, *Na Drini Čuprija*, pp.175-176) 두 번째 장면은 10장에서 오스트리아군의 정식 입성이 정해졌을 때, 오스트리아 사령관이 이 도시로 들어오는 날, 세 종파의 대표들이 나와 직접 그를 영접해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져서. 다음날 정오에 까피야에서 회교도의 물라 이브라힘 호좌(hodža)<sup>13</sup>, 정교회장 니콜라, 라빈(rabin)<sup>14</sup> 다비드 레비가 오스트리아 사령관을 맞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에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두 장면은 안드리치 문학의 예술의 정수를 느끼게 되는 곳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대적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는 작가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소설의 처음 아홉 장에서는 터키인들이 보스니아를 지배하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부분에서는 기독교 세력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이 보스니아를 지배했던 시기를 담고 있다. 회교 문화의 터키인들이 물러나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이 들어온 뒤에, “이 외국인들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는 일이 없었다; 사실, 외관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법, 명령, 규정 들에는 증오가 배어있었으며 사람들, 동물들 할 것 없이 심지어 죽어있는 것들조

10) Muktar 또는 Muhtar, 터어키구역의 우두머리

11) Kmet, 기독교 구역의 우두머리

12) Raja, 터어키지배시기에 비회교도인을 지칭하던 말

13) Hodža, 페르시아어로 회교도 수도승을 가리키며, 항상 이름뒤에 붙여쓴다.

14) Rabin, 유대교의 율법박사, 선생.

차도 자기들 멋대로 변화시키고 바꾸어놓으려고 하였다; 그 뿐 아니라, 마을의 걸모양과 사람들의 습관이나 성향마저도 아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장악해 버릴 심산이었다.”(Ivo Andrić, *Na Drini Čuprija*, p.239)는 말이 나오고, “터키 가정에서나 세르비아 가정에서나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일하고 즐겼다... 슬라바(slava)<sup>15)</sup>나 공휴일, 결혼식에 관한 옛 전통들도 예전과 변함이 없었다. 외국인들이 들여온 소위 신문화에 대해서는 그저 먼 나라에서 온 믿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수근수근 거릴 뿐이었다. 결국, 예전처럼 사람들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점령된 지 15년, 20년이 지나도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 갈 것이다.”(Ivo Andrić, *Na Drini Čuprija*, p.240)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서양의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틀 안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으나, 마을은 오히려 예전의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한 민족이 존재하는 한, 제 문화와 전통을 고수하려는 의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충돌과 자극을 가할수록 그 생명력이 위력을 발휘하는 속성이 있음을 안드리치는 작품을 통해 일깨워줌으로써 함께, 더불어 공존해야 하는 진리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 『삼사라 여인숙의 소극(1946)』에 보면 기독교인에 대한 터키인의 행동을 볼 수가 있다: “크레세보(kreševo)<sup>16)</sup>의 무테셀림(muteselim)<sup>17)</sup> 함자가는 요즘 들어 부쩍 수도원에 대한 불만과 악의를 노골적으로 표시했고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다. 사라예보 신부단에 벌금을 과하게 징수해 곤경에 처하게 하는 반면, 수도원이 소유하고있는 토지나 가축들에 해를 입힐 공리를 하고있었다... 그리고 술탄의 짓궂은 장난으로 신부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소극을 겪으며 지냈다는 페타르 신부의 회상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리는데, 두 문화의 대립을 보여줌으로써 작가는 반어적으로 이해와 수용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소설 『저주받은 안뜰』(1954)에서는 터키인을 부친으로 두고, 회랍인 모

15) SLAVA, 정교회 (orthodox)중에서도 세르비아 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 축일이며 ‘가족 수호 성인(saint)의 날’로 옮길 수 있다.

장손을 통해 세습되는등 교회적 특징과 더불어 민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6) 사라예보에서 약 30km 떨어진 작은 도시로 터어키인들이 정치적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다.

17) Muteselim, 터어키의 행정관료

친을 둔 차밀의 희랍 소녀를 향한 이루지 못할 사랑을 통해 두 종교의 심한 갈등을 그리고 있는 동시에, 또한 스밀나 출신의 터키 청년과 보스니아 출신의 이방인 기독교 사이의 이상한 우정이 감옥이라는 예외적인 환경 속에서도 급속히 두터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배경은 소아시아지만, 이 작품 속에서도 안드리치는 보스니아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빼파르 신부가 아블리아<sup>18)</sup>에서 수감 중이던 때 잠시 함께 지냈던 터키인들이 떠나고 난 후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좋은 친구와 헤어져서 생활과 직업 때문에 마음이 통하지 않은 소원한 사람들과 살지 않으면 안될 때 느껴야 하는 감정이었다.’ 이 부분에서는 서로에 대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만, 다음의 부분에서는 안드리치가 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해’와 ‘수용’의 해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스밀나 출신의 터키 청년과 보스니아 출신의 이방인 기독교 사이의 이상한 우정은, 둘이 만나지 못하고 있던 이 사이에, 이러한 예외적인 환경에서만 있을 수 있듯이, 이 기묘한 감옥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급속히 두터워져 갔다.(Ivo Andrić, *Prokleta avlija*, p. 62) 안드리치 스스로도 기독교 세계와 회교도 세계 혹은, 세르비아인과 크로아티아인 사이에서 갈등을 해아했다. 그의 태생적인 필연과 그가 만들어낸 운명은 작가 스스로가 유고적인 독특한 특성을 그대로 지녔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정도로 안드리치를 감싸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배경을 유달리 사랑했던 안드리치는 그의 소설마다에서 보스니아의 역사적 애환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그의 소설이 가히 유고 민족 문학의 대표적인 것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안드리치가 오랜 시간동안 집필했으나 미처 끝을 내지 못한 소설 『오매르 파샤 라타스』(1977)는 개종자(convert) 라타스와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소설 속에서 사라예보 회교도인들을 *무르타드 타보르*라고 부르는데, 터키어의 배신자 혹은, 개종자라는 뜻을 지닌 무르타틴(murtatin)에서 온 말인데, “개종자 무리”를 일컬어 무르타드-타보르 (murtad-tabor)라고 한다. 소설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총사령관 오매르 파샤와 그의 군대에 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 속에는 터키 군인 복장과 회교도 이름을 가진 외국인들, 기독교인

18) avlija, 그리스어로 담이 높게 쳐진 집 안의 마당을 가리킴.

이나 유태인들 무리에 관한 소식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자였으며 회교도적인 것은 모두 지니고 있던 배신한 적군같은 자들이었다. 그 이방인 무리들을 가리켜 무르타드-타보르라고 한다.(Ivo Andrić, *Omer-paša Latas*, 1992. p.36)

자신의 종교를 버렸던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 새로운 종교 내에서는 “변절자”, “배신한 적군”으로 의심받아야 했던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에 대해 안드리치는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지만, 소설 『오메르 파샤 라타스』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 ‘군대’에서 전반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소설 전체에서도 수 차례 개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안드리치는 “개종자 무리”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터키인들의 생활 방식과 서양인들의 생활 방식 사이에서 모든 갈등과 차이가 어떻게 서로 부딪치며 충돌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 다른 문화권, 정반대의 문화권으로 자의든지 타의든지 옮겨갈 때 그 상황이 얼마나 복잡해지고 어렵게되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개종자들은 친구나 그들을 보호해 줄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에 앞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꺼리며 증오했다고 한다.”(Ivo Andrić, *Omer-paša Latas*, 1992. p.40) 기독교 세계에도 회교도 세계에도 속하지 못했던 무르타드 타보르를 통해 안드리치는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인위적인 사회적 현상에 따라 휩쓸려 갈 때 야기 될 수 있는 불행과 비운을 이야기하면서 문화는 그 자체로 이해되어야 하며, 종교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보편성의 개념을 통한 다 문화적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 V. 맺는 말

앞에서도 이미 수 차례 언급했듯이 문학은 변화해 가는 당시 시대적 현실을 가장 올바르게 수용하고 반영해 낸 산물이다. 그러므로 유고인들의 민족적인 정서와 의식구조가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유고의 민족 문학은 여럿으로 나뉘어진 유고계 민족이 당면한 시대적 고통과 그를 극복하려는 과정 속에서 태동했다는 면에

서 그 의미가 사뭇 각별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어느 민족이든 유형의 차이는 있겠으나 여러 내부적,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 변화라는 현실에 부딪치게 되면 이를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을 가지게 된다. 결국, 그 사회는 정치적,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사회 계층의 대립과 갈등, 정신 문화의 위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민족적 필연성과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문학계에서는 민족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 추구와 그 동질성 회복의 차원에서 민족문학론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학이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인간 정신 문화의 커다란 결정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대의 한 조류를 이루고 있는 민족주의가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이러한 것이 민족 정체성의 수립하고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세르비아 문학에 있어서 부크의 출현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언어적 통일성은 유고 민족의 원천을 처음으로 인식시켜 줌과 동시에 유고인들의 정체성을 진지하게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문학은 그 민족을 표현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언어는 그 문학을 이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크의 언어적 혁명은 문학적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민족 의식 전반에 걸친 커다란 변혁을 가져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세르비아인들은 그들의 민족문학에 있어서 언어의 세르비아화를 통하여 유고민족주의를 고취하고 전개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 민족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언어이며, 그 언어의 실현은 민족의 정체성이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민족 문학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서로 상호적인 역학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유고 내에서의 민족 문학에 대한 논의와 전개는 그들이 처한 역사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에 의한 문학적 자기 인식과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어떤 민족에게 있어서 각기 고유한 전통에 의거한 것으로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품고 있는 문학을 민족 문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유고 민족문학 역시 그 범주를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사실, 유고의 민족문학은 1814년 부크가 출현한 시기부터 그의 사상적 승리를 거두게 되는 1847년까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때

부터 싹튼 세르비아 민족주의는 이 당시 가장 커다란 이슈로 대두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세르비아 문학계에서는 이른바, 의미의 명백화 즉, 간결한 언어사용, 구비 문학의 올바른 이해와 전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유고 민족 문학의 기반 뿐 아니라 유고 문학사의 획을 긋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세르비아어와 철자법에 대한 필요성을 자극하여 수많은 학자들이 이에 적극적인 계몽과 발전을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유고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과 문예운동은 유고인들에게 민족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고 이러한 개념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단결시키며 계몽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 민중의 생활을 소재로 하고 이른바 유고 전역에 퍼져 있던 구비 문학등을 통하여 민족 의식을 고취시켜 민족적 정서를 확립케 한 것이 민족 문학이 갖는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는 한 민족의 존재와 발전에 중요한 명분을 제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 나라의 민족 문학을 이해하는 작업은 곧 제 민족성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고 민족 문학을 통하여 유고 제 민족들을 이해하고 문학, 특히 민족문학이라 칭할 수 있는 장르가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앤더슨의 주장대로 민족주의는 의식적으로 생겨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민족주의를 앞선 커다란 문화체계 이른바 종교적 공동체라든가 역사적 전통과의 결합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유고의 민족문학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 문학 I, 창작과 비평사, 1990.
- 베네딕트 앤더슨(윤형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도서출판 나남, 1991.
- 이상신, “민족주의의 역사적 발전 국면과 그 기능”, 서양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 한국 서양사학회 편, 까치글방, 1999.
- 김지향, 외국문학연구, 2001.
- Aldridge, John W., *Critiques and Essays in Modern Fiction, 1920-1951*. New York, 1952.
- F.F. Marinetti : *Alkoven od celika proživljeni roman* (Vagliardi, Milano, 1921), (Prikaz)-Jugoslovenska njiva, Zagreb, 1921. ( I -VII)
- Gordon, Caroline., *How to Read a Novel*, New York, 1957.
- Hobsbawm, Erich., *Nation and Nationalism Since 1780*.
- J. V. Hammer., *Das Osmanischen Reiches Staatsverfassung und Staatsverwaltung*, Wien, 1815.
- John Hutchinson and Anthony D. Smith, *Nation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Ivo Andrić, Mustafa Madžar, Prosveta, Beograd, 1991.
- \_\_\_\_\_, Trup, Prosveta, Beograd, 1991.
- \_\_\_\_\_, *Žed*. Prosveta, Beograd, 1995.
- \_\_\_\_\_, *Na Drini Ćuprija*, Prosveta, Beograd, 1995.
- \_\_\_\_\_, *Prokleta avlija*, prosveta, Beograd, 1995.
- \_\_\_\_\_, *Omer-paša Latas*, Prosveta, Beograd, 1992.
- \_\_\_\_\_, *Razvoj duhovnog života u Bosni pod uticajem turske vladavine*, Sveska zadudzbine Ive Andrića, Beograd, 1982.
- \_\_\_\_\_, *Pisac govori svojim delom*, BIGZ, SKZ, Beograd, 1994.
- Koljević, Svetozar., *Pripovetke Ive Andrića*, Zavod za udžbenike i nastavna



sredstva, Beograd, 1983.

Korac, Stanko., *Andrićevi romani ili svijet bez boga*, Prosvjeta, Zagreb, 1989.

Milanović, Branko., *Kritičar o Ivi Andriću*, Svjetlost, Sarajevo, 1981.

Palavestra, Predrag., *Knjiga o Andriću*, BIGZ, SKZ, Beograd, 1922.

Popović, Radovan., *Balkanski homer ili život Ive Andrića*, Srpski književni glasnik, BG. 1991.

Tartalja, Ivo., *Pripovedačeva estetika*, Nolit, Beograd, 1979.

《Abstract》

'national problems' and 'nationalism' in Vuk Karadžić's literary works and Ivo Andrić's novels.

KIM, Jihyang

Before the break-up of Yugoslavia, the former Yugoslavia was consisted of six republics. It means that every republic have its own nations. So we can very easily find out that they had very complicating historical backgrounds. Even though nationalism is one of the most powerful forces in this modern world, yet its study has until recently been relatively neglected. As an ideology and movement, nationalism exerted a strong influence in the Yugoslav literature. And the themes which I wanted to find out in Nobel prize winner, Ivo Andrich's literary works are the concept 'nationalism' and the solution. He would like to propose that nationalism has to be understood by aligning it, not with self-consciously held political ideologies, but with the large cultural systems that preceded it, out of which—as well as against which – it came into being. In this essay I tried to deal with all Andrich's novels, including short stories: *The Journey of Alija Gjergjelez*, *The Bridge on the Jeka*, *The Damned Yard*, *In the Guest-House*, *The Days of the Consuls*, *Death in Sinan's Tekke*, *The Bridge on the Drina river*, and so forth. This research which tries to find out the concept 'nationalism' in Ivo Andrich's literary works is very interesting and useful to understand small nation's culture and history. And through his novels the ideology in the former Yugoslavia was not ethnic nationalism, but multi-cultural nationalism. Finally, it was not difficult to find out a specific Andrich's suggestion and solution: harmony, conciliation, and understanding with each

nations. And also I keep pace with study about the first serbian linguistic reformer, Vuk Stefanovich Karajich who perceived that a language i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feature of a nation.